

##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I)

### 1. 전반적인 출제 의도 및 특징

2017학년도 본교의 논술고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코자 하였다. 논술고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중시하며, 수험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제시문들의 내용과 주장을 바탕으로 원하는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교재에 수록된 동서고금의 고전, 문학작품, 사회비평 그리고 통계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주요 제시문들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평이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논술문제는 수험생들이 기존의 교과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하고 응용능력을 배양해왔는지 변별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도록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이처럼 본교의 논술고사는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주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국한시키고, 별도의 선행지식이나 교과외 과정에 대한 부담 없이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를 조율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 2. 문제의 구성

본교의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논술의 성격을 지닌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인문학적 이해능력과 사회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며, 이에 더하여 통합적 사고, 비교 및 대비 능력, 표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논술고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인문계열 II의 논술고사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2개의 큰 문항과 논리적 추론능력을 묻는 1문항(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을 합하여 총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이를 위해 총 5개의 제시문이 주어졌다. 2017년 논술고사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평소 다양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여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올바르게 지니고 분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인문계열 II의 경우 전통적인 미덕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라다크 공동체의 아름다운 미덕을 강조한 글과 더불어 자연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존의 모습을 기록한 진화론적 내용을 다룬 글, 그리고 지구 시민 사회의 진보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해나가려는 움직임을 소개하는 글을 통해 수험생들이 자연과 사회를 아울러 어떻게

공존과 공생을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가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사의 진보와 문명의 발전에 있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글을 대비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도록 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논리적 추론능력을 묻는 문항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관련한 몇 가지 개념들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을 3문항 출제하였다.

### 3. 문항 분석

#### 인문계열 II 제시문 개관

2017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II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공동체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룬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라다크 공동체의 ‘배려’ 정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관용을 베풀도록 해주어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준다. 이런 모습은 자연계의 생물체에서도 자주 관찰되는데, 이를 통해 공존과 공생의 원칙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연현상 속에 충분히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구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아탁’ 공동체의 경우에서처럼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인문계열 II 논술고사에서는 인류의 역사 원동력이 지식인과 청년층에 담겨 있다는 글과 문명의 발전이 대중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글을 대비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공존의 방식’을 비교하시오. [20점]
  
- 2) 1974년 인도 정부가 라다크 지역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개발 정책을 펴면서,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라다크와 같은 공동체가 겪게 될 문제를 서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20점]

### 문제 1 - 출제 의도 및 해설

#### 가) 1-1 문항

제시문 [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인간 공동체의 삶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글이고, 제시문 [나]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 상부상조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밝힌 글이다. 인간 공동체와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공존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연관성 있는 소재인 공존이라는 의미를 찾아 비교하게 함으로써 독해 및 분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사회생태학자인 노르베리호지가 인도 라다크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관찰 연구하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한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다』라는 책의 일부이다. 노르베리호지는 1975년, 언어 연구를 위해 라다크를 찾아갔다가 불리한 자연 조건 속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던 라다크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16년 동안 머문다. 그리고 그 후, 서구식 제도 및 문물의 유입과 개발 속에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분열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쓴 글이다. 이 작품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제시문 [나]는 이은희가 쓴 <다윈은 약육강식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글의 일부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다윈의 진화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개념은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에서 나왔다고 저자는 논의하고 있다. 다윈은 약육강식을 논하지 않았으며, 변이의 다양성을 논의하였다. 그 한 사례로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하며 지의류에 대한 생태를 소개하고 있다.

#### 나) 1-2 문항

본 문항은 마을 공동체가 외부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시장 경제적 영향력으로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지구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찾아보게 함으로써 제시문에 대한 면밀한 독해 및 분석 능력, 이론 적용 능력을 파악하고자 출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 생태학적 안목과 사회 현상학적 대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측정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장준호의 <지구시민사회의 개념적 재구성>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시장 및 자본에 의한 지구화로 삶의 질이 희생되고 있으며 인간이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지구 시민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글이다. 지구 시민 사

회란 세계 사회가 주는 생존 위협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것을 작동시키며 태동한 지구 시민 연대를 의미한다.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함께 얘기하고 행위하는 지구적 협력의 모든 형태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지구 시민 사회의 모습으로서 국제 비정부 기구인 아탁(ATTAC)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 1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전	정민 외	해냄에듀	2016	298-300	제시문 [가]	○
독서와 문법	한철우 외	교학사	2016	245-246	제시문 [나]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능 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EBS	EBS	2015	134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국어 II	김중신 외	교학사	2016	52-63	제시문 [다]	○

**문제 1 - 채점 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관통하는 공통 가치 제시] - 공통적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를 추구함. - 공존이라는 가치를 추구함.	5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공존 방식 차이점 서술]	10

문항	채점기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가] : 사회학적 관점, 배려, 관용, 사회적 관계 중시, 개인보다 공동체 중시 (5점)</li> <li>- 제시문 [나] : 생물학적 관점, 상부상조, 공생 관계,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함, 경쟁을 피함, 새로운 생물종으로 진화 (5점)</li> </ul>	
	<b>[형식]</b> -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표현력, 분량 배분	5
1-2	<b>[라다크와 같은 공동체가 겪게 될 문제 서술]</b> -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기술하여야 함. - 환경 파괴, 시장 경제 도입, 경제와 경영의 대상화, 삶의 질의 희생화, 경쟁으로 인한 배려 및 공존 공동체 파괴, 빈부 격차 발생	8
	<b>[문제를 극복할 대안 제시]</b> -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기술하여야 함. - 지구 시민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빈부 격차의 해소를 위해 정치적인 것을 작동시켜 지구 시민 사회를 결성한다. 정의에 기반한 지구 시민 사회를 결성한다. - 공평한 분배, 사회 정의, 민주주의, 인권, 공정한 무역의 지구화를 추구한다. 정의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함께 소통하고 행위하는 지국적 협력 형태를 구축한다.	8
	<b>[형식]</b> -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표현력, 분량 배분	4

**문제 1 - 예시 답안 및 답안 분석**

**가) 1-1 문항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글쓴이는 공통적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 즉 공존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세상과 생물 세계를 논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사회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공존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인간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마찰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배려와 관용을 통해 긴밀하게 짜인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사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는 불문율을 지키며 살고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 여기는 공존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공존의 방식으로 공생 즉, 공존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다.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물종은 경쟁을 피하고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갖게 마련이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생물종의 다양성의 추구, 공생의 추구가 공존의 방식이 된다. 제시문 [나]에서 소개한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새롭게 진화한 생물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공존 방식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배려와 관용이라는 윤리적 측면의 노력으로 공존의 방식을 찾아 유지하고 있으며, 상부상조라는 방식으로 공존을 추구하는 생물의 경우는 한정된 자원 및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존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노력으로 공존의 방식을 찾아가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 1-1 문항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가]와 [나]에 제시된 대상 및 공존 방식의 차이를 인간 공동체, 생물 공동체라는 범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통찰력 있는 답안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잘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존 방식에 대한 범주 또한 통찰력 있게 윤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어 분석 능력 및 통합 능력이 드러나는 답지를 완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1-2 문항 예시 답안**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개방하고 개발 정책을 펴므로써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겠다는 정부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시장 개방으로 인해 라다크와 같은 마을 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외부 세계와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던 마을 공동체가 외부 세계에 노출됨으로 인해 새로운 물질적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경쟁적 사회 구조가 발생할 것이다.

자연 생태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자연 친화적 생산 구조를 유지하였으나 관광객의 유입으로 자연이 점차 파괴되고, 생산과 소비 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외부의 물질 유입과 더불어 시장 경제가 유입됨으로써 배려와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시장에 의한 지구화는 경쟁 때문에 라다크와 같은 공존 공동체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게 할 것이며, 인간을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비개방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며, 개방을 맞 본 공동체가 과거 회귀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확장된 공동체는 그 규모에 맞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면서도 윤리적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뛰어 넘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도 국제 정치의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가의 시민 사회는 다른 국가의 시민 사회와 지구적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구시민사회가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은 정의에 뿌리를 둔 지구 시민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자본에 의한 지구화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 사회 정의, 민주주의, 인권, 공정한 무역의 지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장 및 자본에 근거한 세계 사회가 주는 생존의 위협에 대하여 정의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함께 이야기하고 행위하는 지구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1-2 문항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라다크와 같은 마을 공동체가 외부 경제 세계와의 교류로 겪게 될 문제를 제시하고, 지구 시민 사회로서의 공동체로 확장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수험생의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대안을 쓰기보다는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요구를 잘 반영한 답안이다.

**문제 2**

[문제 2] 역사와 문명 발전의 주체에 대한 제시문 [라]와 [마]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30점]

**문제 2 - 출제 의도 및 해설**

본 문항은 역사 발전과 문명 성장의 과정에 대한 주장을 이해하고 변혁 주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두 제시문 모두 선구적 소수를 역사 발전과 문명 성장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지만, 소수가 지니는 성격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띠고 있다. 전체 논지에 드러난 선구적 소수의 성격과 이들의 역할을 대비하여 분석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체의 다른 한 축인 다수 대중의 존재를 추출하고 이들의 위상과 역할을 대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라]는 강만길의 <역사와 청년>이라는 글 중 일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역사를 진보와 발전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변혁을 가져오는 원동력은 진보적 청년 지식인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질 것을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논지이다.

제시문 [마]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저 『역사의 연구』를 해설한 글이다. 토인비는 문명의 성장을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성공적인 응전으로 설명하는데, 문명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창조적 소수가 해결함으로써 문명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명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2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화법과 작문	이삼형 외	지학사	2016	225-226	제시문 [라]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능가이드 『독서와 문법』	EBS	EBS	2015	151-152	제시문 [마]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6	236-237	제시문 [마]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이삼형 외	지학사	2016	300-301	제시문 [마]	○

**문제 2 - 채점 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2	<b>[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공통점 지적]</b> - 소수에 의한 역사 발전 및 문명 성장	5
	<b>[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소수의 성격 대비]</b> - 제시문 [라]: 진보적 청년 지식인 - 제시문 [마]: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이	10
	<b>[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대중의 역할 대비]</b> - 제시문 [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밀고 나갈 - 제시문 [마]: 비창조적 대중, 맹목적 추종	10
	<b>[형식]</b>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

**문제 2 - 예시 답안 및 답안 분석**

**가) 예시 답안**

두 제시문은 역사의 발전과 문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논하고 있다. 제시문 [라]에서 역사는 진보이자 발전으로 규정되며, 제시문 [마]에서 문명은 문제 해결 능력인 자기 결정력의 증대에 의해 성장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역사와 문명의 변혁이 다수의 대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구적 소수에 의해 선도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 간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 선구적 소수의 성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제시문 [라]에서 역사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인 소수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지닌 지식인이며, 이들은 주로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청년층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청년층은 상황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보수적인 장년층에 대비되는 진보적 존재이다. 이에 비해 제시문 [마]에서 문명을 성장시키는 소수는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내놓는 창조적 존재이다. 이 창조적 소수가 문명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면 문명은 성장기를 맞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면 문명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라]에서 대중은 소수의 선구자가 한 바퀴 앞으로 돌려 놓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들과 함께 밀고 나가는 주체적 존재로 설정된다. 반면 제시문 [마]에서 대중은 비창조적 다수로 지칭되는데, 창조적 소수를 기계적으로 모방하고 남이 풀어 놓은 해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수동적 존재로 파악된다.

두 제시문에서는 역사와 문명 발전의 선구적 주체를 진보적 청년 지식인과 창조적 소수로 달리 설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대중도 주체적 또는 수동적 존재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나)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라]와 [마]의 논리 전개와 핵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역사와 문명 발전의 주체인 선구적 소수와 대중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두 제시문 모두 발전과 성장의 주체를 선구적 소수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통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제시문에서 선구적 소수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선구적 소수의 성격을 진보적인 청년 지식인과 창조적 소수로 대비하는 동시에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와 문명의 주체 논의에서 선구적 소수뿐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데, 대중의 역할에 대해서도 두 제시문 간의 차이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문제 3**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한 나라의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는 **지니 계수**이다.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산출되는데, 로렌츠 곡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로렌츠 곡선이 아래로 처질수록 소득의 불평등성은 증가한다. 지니 계수는 그림에서  $A/(A+B)$ 인데,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질수록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워지며 평등해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

이 밖에도 소득 분배 상황을 알아보는 지표로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국민 전체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이다.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분위별 평균 소득을 나타낸다. 갑국과 을국 각각에서 동일 분위 내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은 같다고 가정한다.

〈분위별 평균 소득〉

(단위: 천만원)

국가 \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갑국	1	2	3	4	5
을국	1	3	5	7	9

1) 위의 〈분위별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 표의 (1)~(8)을 채워 넣으시오. (소득 누적 점유율은 분수로 답하시오.) [10점]

국가별 \ 인구의 누적 비율	20%	40%	60%	80%	100%
갑국 소득 누적 점유율	(1)	(2)	(3)	(4)	1
을국 소득 누적 점유율	(5)	(6)	(7)	(8)	1

2) 위에서 그린 로렌츠 곡선의 형태와 지니계수의 관계를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 중 어느 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지 설명하시오. [10점]

3) 갑국과 을국의 소득 5분위 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을 각각 구하고, 각 지표별로 두 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십시오. [10점]

**문제 3 -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장 경제에서는 자원 배분이나 소득 분배 등의 경제 문제 해결이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를 전적으로 시장의 가격 기준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조차 누릴 수 없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현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측정하는 척도를 소득 불평등 지표라고 부르는데, 본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지니 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자주 이용된다.

본 문항은 수험생이 이러한 소득 불평등 지표들의 정의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소득 불평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들이다. 먼저 간단한 가상의 국가인 갑국과 을국을 상정하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척도들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양국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게 된다.

일국의 소득 불평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일의 소득 불평등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어떠한 소득 불평등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불평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득 불평등 지표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

**문제 3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6	76	문제 3	○
경제	오영수 외	교학사	2015	150	문제 3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6	74	문제 3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6	145	문제 3	○

**문제 3 - 채점 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문제는 로렌츠 곡선의 원리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 따라서 (1)~(8)의 소득 누적 점유율이 모두 맞으면 만점을 부여.</li> <li>- 이 문제는 단순 계산 착오가 발생한 경우 갑국 (1)~(4) 혹은 을국 (5)~(8)의 전체가 틀릴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각 국가 당 2점 정도의 감점.</li> </ul>	10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의 답안을 이용하여 을국의 로렌츠 곡선이 갑국의 로렌츠 곡선보다 아래 위치한다는 사실을 적으면 4점을 부여.</li> <li>- 위에서 추론한 로렌츠 곡선의 형태 비교를 통하여 을국의 지니 계수가 갑국보다 크다는 사실을 적으면 3점을 부여.</li> <li>- 이에 따라 을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면 3점을 부여.</li> </ul>	10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을 맞게 구하면 4점 부여.</li> <li>- 두 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을 맞게 구하면 4점 부여.</li> <li>- 각 지표별로 두 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올바르게 평가되었으면 3점 부여. 앞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이 계산 착오로 잘못 산출이 되어 감점이 되었을 경우, 여기에서 잘못 구한 지표로 소득 불평등의 비교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감점은 없음.</li> </ul>	10

**문제 3 - 예시 답안 및 답안 분석**

**가) 3-1 문항**

갑국 및 을국의 분위별 평균 소득을 참고하여 20%, 40%, 60%, 80%에 대한 갑국 및 을국의 소득 누적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 동일 분위 내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은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각 분위에 1명만 있다고 가정하고 풀어도 무방하다. 먼저 갑국의 경우, 소득의 합계가  $1+2+3+4+5=15$ 천만 원임을 이용하여 (1) 20%는  $1/15$ , (2) 40%는  $(1+2)/15=3/15$ , (3) 60%는  $(1+2+3)/15=6/15$ , (4) 80%는  $(1+2+3+4)/15=10/15$ 의 소득 누적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을국의 경우, 소득의 합계가  $1+3+5+7+9=25$ 천만 원이므로 (5) 20%는  $1/25$ , (6) 40%는  $(1+3)/25=4/25$ , (7) 60%는  $(1+3+5)/25=9/25$ , (8) 80%는  $(1+3+5+7)/25=16/25$ 이 된다.

**나) 3-2 문항**

앞 문제의 답을 이용하면 모든 인구의 누적비율에 있어서 을국의 로렌츠 곡선이 갑국보다 아래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니 계수의 산출 방식에 따르면 을국의 지니 계수가 갑국보다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니 계수 기준으로 을국이 갑국보다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

**다) 3-3 문항**

먼저 소득세 5분위 배율은 갑국이  $5/1=5$ 가 되며, 을국이  $9/1=9$ 가 됨을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갑국의 경우, 전체 평균 소득의 50%가  $3 \times 0.5=1.5$ 천만 원이므로

이보다 소득이 작은 인구의 비율은 20%가 되며 이것이 갑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된다. 을국의 경우, 전체 평균 소득의 50%는  $5 \times 0.5 = 2.5$ 천만 원이므로 이보다 소득이 작은 인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대적 빈곤율을 구하면 20%가 된다. 따라서 소득세 5분위 배율 기준으로는 을국이 갑국보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 기준으로는 갑국과 을국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불평등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불평등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사례이다.